



Grace in Action

Stories of God at work in and through the GIS community

January 2019



신실한 종

그레이스 국제 학교는 세계 선교를 품고 하나님께 헌신한 세계각지에서 온 경력 교사들을 통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스 학교에서 가장 오랜기간 가르친 교사 중 한 명은 에이미 블레어(Amy Blair) 선생님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출신인 에이미 선생님은 거의 16년 동안 그레이스 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담임하는 에이미 선생님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전에 가르친 학생들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제가 가르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이미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은 그레이스로 돌아와 교사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2003년 여름, 큰 기대를 안고 그레이스 학교에 도착한 후, 하나님은 에이미 선생님께서 태국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주셨습니다. 에이미 선생님은 새로운 제 2의 고향이 된 태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태국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더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전통적인 태국을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에서 함께 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시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태국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선생님은 몇몇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태국 영혼들을 향한 에이미 선생님의 헌신은 그레이스 학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많은 그레이스 스텝들이 만나는 학생들, 동료들,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에이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스 학교에서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